

[EPL]"맨유, 무리뉴 감독 선임" <英언론>

등록 2016.05.27 08:17:18 | 수정 2016.12.28 17:07:23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스페셜 원' 조세 무리뉴(53) 감독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끈다.

영국 공영 BBC를 비롯해 외신들은 27일(한국시간) "무리뉴 감독과 맨유가 감독 부임에 대해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3년이 유력하다. 무리뉴 감독이 2018~2019시즌 맨유의 지휘봉을 잡는 셈이다.

공식 발표는 현지시간으로 2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맨유 레전드로 꼽히는 리오 퍼디난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뉴 감독이 세계에서 가장 큰 팀의 감독을 맡게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스포츠는 무리뉴의 행적을 추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 집을 나선 무리뉴 감독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에드 우드워드 맨유 부회장을 만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리뉴 감독은 모종의 문서와 함께 레드 와인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의 연봉은 1200만 파운드(약 208억원)이다.

sympath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